

사전과 관상서에 나타난 ‘痣’의 의미 고찰

백수진*

目 录

1. 서론
2. ‘痣’에 대한 사전의 번역어
3. 관상서의 ‘痣’에 대한 정의와 해석
4. 결론

1. 서론

관상에서는 한 사람의 길흉화복에 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명대나 청대의 관상서에도 점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관상서에서는 고대 관상서보다 더 자세하게 얼굴이나 신체 부위별 점에 대해 해석하고 있으며, 얼굴의 같은 부위의 점이라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보았다. 관상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중국에서는 ‘점’을 지칭하는 말로 ‘痣’를 사용한다. 반점(斑)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국내의 관상서도 대부분 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상가의 실전 경험을 첨가하기도 했지만 주로 중국의 고대 관상서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일본 관상서에서 다른 내용을 참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술 내용은 ‘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면서도 소제목이나 내용에서는 정작 ‘점’ 대신에 ‘검은 사마귀’ 혹은 ‘사마귀’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한자사전이나 중국어 사전에도 ‘痣’가 ‘점’이 아닌 ‘사마귀’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사마귀’에

* 계명대학교 중국학전공 부교수

해당하는 단어는 ‘痣’가 아닌 ‘疣’이다.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해서 이 논문에서는 의학적 관점이 아닌 관상학적 관점에 ‘痣’에 대한 올바른 우리말 대응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점’ 대신에 ‘검은 사마귀’ 혹은 ‘사마귀’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 ‘痣’에 대한 사전의 번역어

먼저 국내외의 각종 사전에서는 ‘痣’자와 ‘疣’자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1) 『漢韓大字典』(民衆書林, 1986/초판 1966)
 痣: 사마귀 지 흑자(黑子). 赤痣 黑痣
 疣: 흑 우 내민 군더더기의 살덩이. [疣贅]흑.
- 2) 『大漢韓辭典』(博文出版社, 1977/초판 1965)
 痣: 검은 사마귀 지 (黑子. 靨)
 疣: 흑 우. [疣贅 우취] 사마귀와 흑
- 3) 『進明 中韓辭典』(진명출판사, 2004/초판 1997)
 痣: [zhi] 사마귀 지 (명) <醫> 사마귀 [흑색·갈색·청색·홍색 등의 모반(母斑)의 일종] = [黑痣] [黑子] || 紅痣 붉은 사마귀
 疣 <疣>: [yóu] 흑 우 (명) <醫> 사마귀 = [瘰hóu子]
- 4) 『中韓辭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2/초판 1989)
 痣: [zhi] <生理> 피부의 반점. 모반(母斑). 「黑~: 검은 반점=黑子」 → [瘰子]
 疣: [yóu] 사마귀 [疣子] [瘰子]
- 5) 『大漢和辭典』(卷7)(大修館書店, 2000)
 痣: はくろ。あざ。(점. 멍)
 疣: いは。(사마귀)

6) 『프라임 일한사전』(동아출판사, 1990)

はくろ : [黒子] (검은) 사마귀. 점

7) 『中英辭典』(商務印書館, 1979)

痣 : nevus. mole

疣 : wart

8) 『漢典』(중국의 인터넷 사전)¹⁾

痣 : 인체 피부에 생기는 색소 반점으로 아프고 간지러운 느낌이 없다.

영어로는 'spots, moles; birthmark'라 한다.

疣 : 피부병의 일종으로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다. 피부에 황갈색의 작은 종기가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속칭 '瘰子'라 말하기도 한다).

영어로는 'wart; tumor; goit'라 한다.²⁾

총 8개의 사전을 비교해보면 국내에서 출간한 『漢韓大字典』, 『大漢韓辭典』, 『進明 中韓辭典』에서는 '痣'를 '사마귀'로 번역하였다. 『中韓辭典』에서만 '반점, 모반'으로 번역하였다. 『中韓辭典』에서 번역어로 사용한 '모반'은 점의 의학적 용어로 출생 때 존재하기도 하지만 주로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피부색소 침착을 말한다. 영어로는 'nevus'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출간한 『大漢和辭典』(제7권)에서는 간단하게 '痣'를 'はくろ(점. あざ(멍))'으로 번역했고, '疣'를 'いは(사마귀)'로 번역했다. 그런데 『프라임 일한사전』에서는 'はくろ'를 '(검은) 사마귀, 점'으로 번역했다.

중국에서 출간한 『中英辭典』에서는 '痣'를 점의 의미인 'nevus. mole'로 번역하였고, '疣'를 사마귀의 의미인 'wart'로 구분하여 번역했다. 'mole'은 약간 튀어나온 점을 가리킨다. '痣'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 번역하였다. 『漢典』에서도 '痣'를 영어로는 'spots, moles; birthmark'의 의미로 넓게 해석했다. 점의 해석 범위에 '몽고반점(birthmark)'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마귀

1) 『漢典』은 2004년에 만든 방대한 용량의 인터넷 사전으로 75983개의 한자와 361998개의 단어와 구, 32868개의 성어를 해석하여 수록하였다.

2) 원문: 人体皮膚所生的有色斑点, 沒有痛癢等感覺。/ 一种皮膚病, 病原体是一种病毒, 症狀是皮膚上出現黃褐色的小疙瘩, 不痛也不癢(俗称“瘰子”)。

를 지칭하는 ‘wart’와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疣’의 번역에서도 『漢韓大字典』에서는 ‘혹’으로 번역하였고, 달리 ‘疣贅’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大漢韓辭典』에서도 ‘痣’는 ‘검은 사마귀’로 번역했고, ‘疣贅’를 ‘사마귀와 혹’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疣贅’는 ‘혹’이 아닌 사마귀를 지칭하는 ‘疣’의 별칭이다. 한편, 중국에서 출간된 각종 사전에서는 ‘疣’를 ‘瘰子(사마귀)’와 동의로 해석하였다. 또한 ‘疣贅’를 ‘贅疣’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漢韓大字典』의 초판 발행은 1966년도이다. 2010년의 전면개정·증보판(제3판 제3쇄)에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있다.

痣 : ①사마귀 지 흑자(黑子)。② 점 지 색소가 침착하여 피부에 생긴 반점
疣 : 우. 혹. 내민 군더더기의 살덩이。

‘痣’의 번역에서 중국의 사전을 참고하여 ‘점’이라는 번역어를 첨가하였지만 여전히 ‘사마귀’란 번역어를 앞자리에 두고 있다. 이들 사전 외에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총 15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2006년도에 초판을 낸 『漢韓大辭典』(제9권)에서는 ‘痣’를 ‘피부에 생기는 반점이나 사마귀’로 번역했고 ‘疣’는 ‘혹 또는 사마귀’로 번역했다.

이번에는 국내 영어사전에서 영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자.

- 9) 『엘리트 영한사전』(시사영어사, 1993)
nevus : 모반(선천성 사마귀, 점, 주근깨 따위)
mole : 사마귀. 검은 점

영한사전에서조차도 ‘nevus’의 번역어로 ‘선천성 사마귀’란 표현을 사용했고, ‘mole’도 ‘점’이 아닌 ‘사마귀, 검은 점’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넓은 의미의 점을 지칭할 적에 ‘nevus’를 사용하고 튀어나온 형태를 띤 점을 지칭할 적에 일반적으로 ‘mole’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마귀’의 의미로는 ‘wart’를 사용한다. 국내 사전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전이든 간에 한결같이

'痣'를 '점'이 아닌 '사마귀'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중국에서 출간된 사전에서 번역한 것을 근거로 볼 때 '痣'에 대응하는 번역어는 '사마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관상서의 '痣'에 대한 정의와 해석

명대의 관상서인 『柳莊相法』³⁾에서 언급한 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痣'는 산림의 봉우리와 같고 높지 않으면 안 된다. 높은 것을 '痣'라 하고 편평한 것을 '點'이라 하고 푸르거나 누런 것을 '斑'이라 한다. '斑'과 '點'은 얼굴 위에 생겨서는 안 된다. 관상서에서 말하는 "얼굴에 '斑'과 '點'이 많은 사람은 장수할 수 없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얼굴에 난 '痣'는 드러난 '痣'이고 몸에 난 '痣'는 감추어진 '痣'이다. 산림에는 초목이 있어야 하듯이 '痣'에는 털이 있어야 좋다. ... (색은) 먹과 같이 검거나 주사와 같이 붉어야 하고, 단단하고 둥글고 튀어나와야 귀하다. 약간 편평하면 소귀(小貴)에 속한다.⁴⁾

『柳莊相法』에서는 피부 위로 튀어나온 점을 '痣'라 하고 편평한 점을 '點'이라 하였고, 편평하게 넓게 번진 얼룩을 의미하는 '斑(반점)'과는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편평한 점과 반점은 얼굴 부위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안 좋은 점이고, 색이 검거나 붉고 단단하고 형태가 둥글고 많이 튀어나온 점이 좋은 점이고 약간 튀어나온 점이 조금 좋은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柳莊相法』全篇에 사마귀를 의미하는 '疣'란 글자는 없었다. '痣'의 의미 범주에 '疣'가 포함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단단하고 둥글고 튀어나왔다

3) 지금 전해지는 『柳莊相法』은 청대 '四庫全書'에 수록된 것이다. 명대의 袁拱(1334-1410)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후인의 가탁이란 주장도 있다.

4) 원문: 痣若山林峯仞, 不可不高。解曰: 凡高者爲痣, 平者爲點, 青黃者爲斑, 凡斑點俱不宜生面上。書云: "面多斑點, 恐非壽考之人。" 正謂此也。在面爲顯痣, 在身爲隱痣, 俱宜有毫, 如山林有草木方妙。... 黑如墨, 赤如珠, 硬圓高者, 方貴, 中平小貴。

는 점에서는 ‘痣’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사마귀는 흑색이 아닌 피부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점으로 볼 수 없다.

관상서뿐만 아니라 晚唐 시기 소설 작품에서도 얼굴의 점 ‘痣’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분쇄한) 호박약이 너무 많아 걱정 함량에 미치지 못했다.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다. 좌측 뺨에 붉은 점이 생겼는데 ‘튀어나온 점(痣)’ 같이 생겼다. 보니까 더욱 훨씬 더 예뻐다. (『酉陽雜俎』)⁵⁾

이번에는 송대의 관상서인 『神相全編』의 점에 대한 해석을 보자.⁶⁾

‘黑子’는 산에 나무가 자라고 땅에 언덕이 생기는 것과 같다. 산에는 좋은 토질이 있어야 좋은 나무가 자라 그 수려함을 드러낸다. 땅에 더러운 흙이 쌓이면 나쁜 언덕이 생겨 그 탁함을 드러낸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이리하다. 사람이 좋은 자질이 있으면 검은 점이 생겨 그 귀함을 드러내고, 탁한 자질이 되면 ‘惡痣(나쁜 점)’가 생겨 그 천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漢高祖는 좌측 넓적다리에 72개의 黑子が 있어서 제왕으로서의 상스러운 상이 보였다. 黑子が 드러난 곳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흉하고, 감추어진 곳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길하다. 얼굴에 난 것은 이롭지 못하다. 또한 검은 것은 그 색이 옷과 같이 검고 주사와 같이 붉어야 좋다. ...⁷⁾

『神相全編』에서는 ‘점’을 지칭하는 단어로 ‘黑子’와 ‘痣’를 사용하였으나 점

5) 작품 『酉陽雜俎』는 晚唐 시기의 段成式이 쓴 志怪小說集이다. 원문: 琥珀太多, 及差, 痕不滅, 左頰有赤點如痣, 視之, 更益甚妍也.

6) 『神相全編』은 송대 사람들이 이전의 각 시기의 저명한 관상가의 논술과 저작을 집대성한 책으로 중국 관상술의 모든 영역을 개괄했다. 이 책의 저자인 陳搏은 후인이 가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책은 이후 명대의 관상가 袁忠撤이 정정하고 주석을 달아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7) 夫黑子者若山之生林木、地之出堆阜也。山有美質則生善木以顯其秀，地積汚土則生惡阜以樂其濁。萬物之理皆然。是以人有美質也則生其黑以彰其貴，有濁質也則生惡痣以表其賤。故漢高祖左股七十二黑子則見帝王之瑞相。凡黑子生於顯處者多凶，生於隱處者多吉，生於面上者皆不利也。且黑者其色黑如漆、赤如硃者善也。帶赤者主口舌鬪競，帶白者主優驚刑厄，帶黃者主遺忘失脫。此義理之辯。

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다만 얼굴에 있는 점은 대부분 안 좋은 점이고 몸에 있는 점은 대부분 좋은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쁜 점’을 ‘惡痣’로 표현하였다. 옷색(흑색)과 朱沙색(홍색)의 점을 길한 점으로 보았다. 『柳莊相法』에서와 마찬가지로 ‘疣’란 단어는 없었다. 그리고 ‘黑子(검은 점)’와 구분되는 ‘斑’에 대해서는 『柳莊相法』에서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참새알에 있는 무늬와 같은 ‘반점(斑)’이 있는 자는 아내와 자식이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을 해도 늘 순조롭지가 않고, 남의 덕을 보기를 좋아한다.⁸⁾

관상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漢高祖左股七十二黑子”이란 내용은 『史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 전국시대에 이미 관상에서 점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柳莊相法』에서도 ‘痣’의 의미 범주에 ‘사마귀’가 포함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위의 점에 대한 정의를 볼 때 ‘黑子’의 의미 범주에 ‘痣’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黑子’와 ‘痣’를 같은 등가어로 보아야 한다. 청대의 관상서인 『相理衡眞』의 점에 대한 정의는 『神相全編』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용어 사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神相全編』의 “夫痣者, 若山之生材木, 地之出堆阜也。”에서 ‘痣者’를 『相理衡眞』에서는 ‘黑子’로 바꾸어 “夫黑子者, 若山之生材木, 地之出堆阜也.”로 표현하였다. 『廣韻』과 『集韻』에서도 ‘痣=黑子’로 해석했고, 『師古註』에서도 “吳와 楚에서는 ‘痣’를 ‘黧[염/yǎn]’이라 부르기도 하고 ‘黑子’라 부르기도 한다”고 주석을 덧붙였다.⁹⁾

‘黧’은 『漢韓大字典』에서는 ‘사마귀 염/검은 점 암’으로 해석했고, 『進明中韓辭典』에서는 ‘검은 사마귀 염’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漢典』에서는 ‘黧’을 ‘黧’과 동의어로 보았다. ‘黑色的痣(흑색의 점)’으로 해석하고, 영어로는 ‘mole’

8) 원문: 雀卵斑者, 主妻子難爲, 作事犯重, 事愛便宜. 다른 판본에서는 ‘做事犯重’가 ‘做事犯克’로 적혀있다.

9) 원문: 吳楚俗爲黑子爲誌, 通呼黧, 黑子. 『大漢和辭典』(제7권), 大修館書店, 2000. 『漢韓大辭典』(제9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6, 참조.

로 번역했다. 즉, ‘黧’는 ‘튀어나온 검은 점’을 지칭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痣’가 ‘반점(斑)’과 구분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에서 출판한 ‘점’만을 다룬 관상서 『痣斑命相大全』¹⁰⁾에서도 책 제목을 ‘痣’가 아닌 ‘痣斑’으로 표현한 것도 ‘痣’을 ‘斑’과 구분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고전이 아닌 중국의 현대 관상서에서는 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관상서 중에서 점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두고 기술한 책은 많지만 점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 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관상서에서는 ‘痣’에 대한 설명 없이 ‘痣’가 얼굴이나 몸의 어느 부위에 위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식의 간단한 해석만 하고 있다. 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책으로는 최근에 출간된 紫陽居士의 『痣相一本通』과 鐵筆居士의 『3天搞懂痣相』¹¹⁾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痣相一本通』에 적힌 좋은 ‘점(痣)’과 나쁜 ‘점(痣)’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좋은 점 : ① 돌출되고, ② 기름을 바른 듯 윤택하고, ③ 회색이나 홍색, 황색이 끼지 않은 완전 흑색이고, ④ 완전히 둥글고, ⑤ 긴 털이 난 것.

나쁜 점 : ① 표면이 튀어나오지 않고 편평하거나 약간 들어가고, ② 안개가 낀 듯 표면이 암몽색(약간 회색과 다갈색)이고 광택이 없고, ③ 회색, 홍색, 갈색 등의 색이 뒤섞였고, ④ 깨끗한 원형(圓形)이 아닌 것.

紫陽居士는 또 점(痣)과 반점(斑)을 ① 胎記, ② 痣, ③ 斑, ④ 點, ⑤ 疣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²⁾

‘胎記’는 ‘몽고반점’을 말한다. 피부에 생기는 것으로는 ‘痣’, ‘斑’, ‘點’이 있지만 약간 튀어나온 것이 ‘痣’이고, 흑색이 가장 많고 주사(朱砂)색, 적색, 회색, 청색 등의 색이 있다. 피부색과 다른 얼룩무늬를 ‘斑’이라 한다. 색은 대부분이 옅은 황색, 흑색, 살색, 청색, 홍색이다. 편평하여 ‘痣’처럼

10) 蔗廊間人, 『痣斑命相大全』, 武陵出版有限公司, 2002.

11) 鐵筆居士, 『3天搞懂痣相』, 樹葉出版社, 2011. 紫陽居士, 『痣相一本通』, 知青頻道出版有限公司, 2014.

12) 紫陽居士, 『痣相一本通』, 知青頻道出版有限公司, 2014, 33-35쪽.

튀어나오지 않았다. '斑'의 형성 원인은 대체로 '痣'와 동일하나 혈관이 피부 아래에서 과열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매우 작은 '斑'을 '點'이라 한다. '斑點'이란 말은 '斑'과 '點'을 합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굴의 '雀斑(주근깨)'이다. '疣'는 작은 것은 외견상 '痣' 같이 보이지만 색이 피부색과 유사하다. 대부분 표면이 부드럽고 매끄럽지만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것도 있다. 큰 것은 종양과 같아 '疣贅'라고도 한다. 때론 '痣'과 '疣'가 같이 한 곳에 자라 큰 '痣'로 변한다.

鐵筆居士 '胎記, 痣, 斑, 點, 疣'를 구분하여 설명하면서도 관상을 볼 적에는 모두 '점(痣)'으로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고 했다. 紫陽居士 또한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점과 반점(痣斑)'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관상에서 '斑'과 '點'은 모두 '나쁜 점(惡痣)'에 속한다고 했다.¹³⁾ 앞의 다섯 종류를 점을 각각 따로 지칭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점'이나 '반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마귀(疣)도 '痣' 혹은 '痣斑'의 범주에 포함하여 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관상을 볼 적에 사마귀(疣)를 '점(痣)'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분리시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관상 실전에서는 '痣'를 단지 튀어나온 점, 튀어나오지 않은 점, 큰 점(大痣), 작은 점(小痣), 좋은 점(善痣) 나쁜 점(惡痣), 살아있는 점(活痣), 죽은 점(死痣) 등으로만 구분하여 표현한다. 이 구분으로 보면, 사마귀(疣)도 '튀어나온 점(痣)'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점으로 볼 수는 없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긴 피부질환이다. 피부색소침착에 의해 생긴 점과는 엄연히 구별되며, 좋은 점(살아 있는 점·活痣)의 판단 기준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얼굴의 좋은 부위에 위치한다 해도 이는 나쁜 점에 해당한다. 사마귀는 대부분이 피부색과 비슷하고 간혹 다갈색을 띤 것이 있다. 완전히 검은 색에 광택이 나는 것은 사마귀가 아닌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으로 점과는 구별된다. 이는 피부암의 일종으로 본다. 육안으로는

13) 鐵筆居士, 『3天搞懂痣相』, 樹葉出版社, 2011, 12쪽. 紫陽居士, 『痣相一本通』, 知青頻道出版有限公司, 2014, 35쪽.

튀어나온 검은 점과 구분하기 어렵다. 비록 의학적 판단은 아니지만 紫陽居士가 다음에 언급한 내용은 ‘악성 흑색종’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점만을 가지고 귀천길흉(貴賤吉凶)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점 주위 피부의 색도 같이 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판단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점은 점 주위에 홍윤(紅潤)한 기색이 나타나야 한다. 가장 나쁜 점은 점 자체의 색이 안 좋은 것 외에도 점 주위에도 짙고 어두운 색이 나타나는 것이다.¹⁴⁾

紫陽居士의 점에 대한 설명은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악성 흑색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악성 흑색종의 의학적 설명은 “크기가 6mm 이상으로 자라고, 비대칭이다. 그리고 잡다한 색깔에 살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다.

이번에는 국내 관상서의 점과 관련한 내용을 보자. 아래에 열거한 관상서는 가장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대표성을 띠는 관상 전문가들이 저술한 책이다.

- 1) 金哲眼, 『觀相寶鑑』(1955)
 검은사마귀가 있어도 자운(子運)이 좋지 않다. (남녀궁, 77쪽)
 산근에 흑자(黑子)가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은 일생에 신병을 면하기 어렵다. (산근, 82쪽)
 흠이 있거나 검은점이 있으면 주택을 여러 번 변경한다. (전택궁, 84쪽)
- 2) 申一, 『觀相學全書』(1977)
 제15절 얼굴의 점(黑痣) (142쪽)
 점은 즉 사마귀(黑痣 혹은 黑子)인데 대개 얼굴에는 사마귀가 있는 사람이 많다. ...사마귀는 대개 그 빛깔이 대개 검은 것이 많으므로 흑지(黑痣)라 하나 ...
- 3) 秋松鶴, 『觀相學總秘傳』(1979)
 제十二章 사마귀와 흉터에 관한 비 (86쪽)
 ※사마귀와 흉터에 관해서는 ...

14) 紫陽居士, 『痣相一本通』, 知青出版社, 2014, 28쪽.

※천중에 사마귀·흉터가 있는 자는 …

- 4) 백운학·강태호, 『관상 보는 법』(1991)
제7절 검은 사마귀의 운명 해설(黑痣運命解說) (89쪽)
천정(天庭) 한 가운데 흑자(黑子)는 대길(大吉)하니 큰 벼슬(大官)을 할 징조이다.
- 5) 이정옥, 『실용관상학』(2005)
간문에 검은 사마귀나 주름이 있으면 … 간문에 사마귀나 질 또는 혈한 자국은 … (179쪽)
- 6) 김광일, 『관상학길잡이』(2008)
얼굴에 점이나 사마귀가 있다고 해서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219쪽)
- 7) 최형규, 『꿀값하네』(2008)
우선 얼굴에 난 흑점은 길점(吉點)이 없다. … 이보다 규모가 큰 사마귀는 얼굴 부위에 따라 길한 것과 흉한 것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복사마귀가 많다. … 인당의 흑점은 흉하다. 그러나 사마귀는 길하다. (326쪽)

김철안은 ‘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고 얼굴의 각 부위별 설명을 다루면서 그 부위에 위치한 점의 길흉을 언급하였다. 점에 대한 개념 설명은 따로 없었고, ‘검은 점’, ‘흑자(黑子)’, ‘검은 사마귀’ 등의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였다. ‘검은 사마귀’란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였고, “귀 속에 사마귀가 있는 자는 귀자(貴子)를 둔다”¹⁵⁾란 표현에서만 ‘사마귀’란 용어를 한번 사용하였다. 申一은 소제목은 ‘점(黑痣)’라 표현하면서 내용 설명에서는 “점은 즉 사마귀인데 …”란 표현을 하였다. 秋松鶴은 ‘점’이란 단어는 없고 ‘사마귀와 흉터’란 표현만 사용하였다. 백운학·강태호는 표제어에서 ‘검은 사마귀’란 단어를 사용하고 내용 설명에서는 ‘흑자(黑子)’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김광일과 최형규는 점과 사마귀를 별도로 보고 사마귀도 길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점을 ‘사마귀’로 표현한 것은 번역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5) 金哲眼, 『觀相寶鑑』, 단기4288[1955], 大文社, 101쪽.

- 8) 李仁光 역, 『觀相寶鑑』(1981)
제6장 주름과 사마귀를 보는 법 (208쪽)
천양(天陽)에 사마귀나 흠이 있는 사람은 …
- 9) 『상리형진』(1998)
흑지 총론(黑痣總論)
- 피부에 난 검은 점과 사마귀로 운명을 결정함 (596쪽)
피부에 생겨나는 검은 점이나 사마귀를 산천에 비유한다면 …¹⁶⁾
- 10) 이견일 역, 『관상학의 교과서 유장상법』(2014)
피부 표면에 높게 나온 것은 사마귀[痣]이고, 편평한 것은 점[點]이며, … (193쪽)

위에 열거한 관상 저작은 번역서를 제외하고는 관상 전문가들이 저술한 대표성을 띠는 책들이다. 모두들 ‘점’ 대신에 ‘사마귀’란 표현을 사용하거나 ‘점이나 사마귀’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번역서 『상리형진』에서는 ‘黑子’를 ‘검은 점’으로 보고 ‘痣’를 ‘사마귀’로 보았다.

중국어 사전인 『中韓辭典』의 초판 발행은 1989년이다. 그전에 역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漢韓大字典』 류의 한자사전이나 옥편을 찾아보면서 중국 고대 관상서를 읽고 해석하였을 것이다. 관상가들은 관상 실전에서는 얼굴의 점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면서도 막상 저작물에서는 ‘점’ 대신에 ‘사마귀’ 혹은 ‘검정 사마귀’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된 데는 사전의 대응 번역어인 ‘痣=사마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관상학의 교과서 유장상법』과 『상리형진』은 중국의 명·청대 관상서인 『柳莊相法』과 『相理衡眞』을 각각 번역한 것이다. “피부에 생겨나는 검은 점이나 사마귀를 산천에 비유한다면 …”의 원문은 “夫痣者, 若山之生材木, 地之出堆阜也。… 凡黑子生於顯處者多凶, …”이다. ‘痣’의 뜻을 ‘사마귀’로 보고 ‘黑子’의 뜻을 ‘검은 점’으로 본 것이다.

『觀相寶鑑』¹⁷⁾은 일본의 관상서를 번역한 것이다. 『觀相寶鑑』에서는 점에

16) 원문: 夫痣者, 若山之生材木, 地之出堆阜也。… 凡黑子生於顯處者多凶, …

17) 佐藤六龍/李仁光 역, 『觀相寶鑑』, 明文堂, 1981[초판].

대한 설명을 시종일관 ‘사마귀나 흠’으로 표현하고 있다. 『大漢和辭典』(卷7)에 나오는 ‘痣’의 번역어는 ‘はくろ。あざ。(점. 멍)’이다. ‘はくろ’의 뜻을 다시 ‘일한사전’을 찾아보면 ‘(검은)사마귀’로 번역되어 있다. 심지어 어떤 관상가는 ‘사마귀’만이 길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점은 여기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상서에 나오는 ‘痣’를 ‘사마귀’란 의미로 잘 못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 국내 관상서에서 튀어나온 검은 점을 지칭하는 대응어로 ‘검은 사마귀’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 ‘검은 사마귀’란 단어는 『우리말큰사전』¹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상서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점’을 지칭하는 ‘검정사마귀’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어느 봄날 옥화는 성기에게 그녀의 지난날을 이야기해준다. 체장수는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화개장터에 와 하룻밤을 놓고 갔던 자기의 아버지가 틀림없으며 자신의 왼쪽 귓바퀴의 검정 사마귀를 보여주면서 계원은 자기의 동생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동리, 『역마』¹⁹⁾)

작품에서 말하는 ‘검정 사마귀’는 ‘사마귀’가 아닌 ‘튀어나온 검은 점(痣)’임을 추정할 수 있다. 작품 내용으로 볼 때 이 ‘점’은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 점이기 때문이다. ‘검정 사마귀’라는 대응어는 의학전문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간호학대사전』²⁰⁾에서 인용한 ‘검정 사마귀’에 대한 설명이다.

검정사마귀[lentigo]

좁쌀 낱알 크기에서 팔 크기 정도까지의 편평한 반(斑) 또는 반구상(半球狀)으로 융기한 소형의 피진(皮疹)을 형성하는 것을 검정사마귀라고 한다. 색은 흑색 내지 흑갈색이고 발생연령은 소아기에 많은데, 성인에게 있어서 신생을 보게 된다.

18)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19) 김동리(金東里)가 지은 단편소설. 1948년 1월 『백민(白民)』 12호에 실렸으며, 1950년 正晉社에서 같은 이름으로 간행한 단편집 『역마(驛馬)』에 수록되었다.

20) 대한간호학회 편,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이 내용은 사실상 편평한 점과 튀어나온 점(痣, nevus/mole)에 관한 내용이다. 사마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중국에서 출간된 사전에서 ‘lentigo’란 단어의 번역어는 ‘斑點, 雀斑, 小痣(반점, 주근깨, 작은 점)’ 등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말큰사전』²¹⁾에서도 점과 사마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점 : 살갓이나 짐승의 털 따위에 다른 빛깔로 나타나는 작은 얼룩 따위

사마귀 : 살갓에 낱알 만큼씩 도도룩하고 납작하게 돋은 검은 군살

『우리말큰사전』의 ‘점’에 대한 설명은 실은 ‘반점’을 의미하고, ‘사마귀’에 대한 설명은 ‘튀어나온 검은 점(痣)’에 대한 설명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은 검정사마귀 혹은 사마귀를 ‘튀어나온 검은 점(痣)’과 동일시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에서는 ‘튀어나온 검은 점(痣)’을 지칭하는 명사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엘리트 영한사전』에서 ‘nevus’를 ‘모반(선천성 사마귀)’로 번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상가들이 자신들의 저작에서 ‘검정 사마귀’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첫째로 『漢韓大字典』 류의 한자사전이나 옥편의 번역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튀어나온 검은 점’의 대응어로 ‘검정사마귀’란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번역서 『觀相寶鑑』, 『상리형진』, 『관상학의 교과서 유장상법』은 사전의 번역어를 참고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와 달리 중국의 민간에서는 튀어나온 검은 점을 편평한 검은 점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중국의 河南省 濮陽市에서는 점이 모양이 크든 작든 간에 편평한 점을 ‘痣’라 하고, 면적이 크면서 튀어나온 점을 ‘瘡子’라고 불렀다. 편평한 점과 튀어나온 점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피부색의 사마귀는 ‘疣’라 불렀으며, 사마귀처럼 둥글게 튀어나오고 유난히 크고 검게 빛나는 점을 ‘瘡子’라 불렀다. 그리고 반점을 ‘斑’이라 불렀다. 이쪽 지방 사람들이 말하는 ‘瘡子’는 ‘사마귀’가 아닌 ‘악성 흑색종’을 가리킨다. 『英漢雙語 現代漢語詞

2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典』에서는 ‘痞子’를 “용기된 점으로 반구형(半球形)이고 홍색이나 흑갈색을 띤다. 영어로는 ‘naevus’, ‘mole’이라 한다”²²⁾로 해석했다. 『漢典』에서도 ‘痞子’는 ‘黑痣’와 동의어라고 했다. 또한 湖南省 長沙市에서는 튀어나온 점을 ‘痣’라 부르고 편평한 점을 ‘黑點’ 혹은 ‘麻子黑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홍콩)의 관상가 白鶴鳴은 『教你看相快而準』에서 점을 다룬 항목별 소제목마다 ‘痣’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癍’이란 글자를 사용하였다.²³⁾ 그리고 내용 설명에서는 ‘癍子’, ‘癍痣’, ‘黑子’ 등의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였지만 대부분 ‘癍子’를 사용하였다. 국내의 『漢韓大字典』에는 이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 『漢典』에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癍 [mèng] ◎ 方言, 痣。

English: (Cant.) a mole (on the skin)

이 해석에 따르면 ‘癍’은 ‘痣’와 동의어인 방언이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mole’을 사용하였다. ‘癍’ 역시 ‘튀어나온 검은 점’을 의미한다.

4. 결론

‘痣’는 피부색소침착으로 인해 생긴 점을 말한다. 의학적 관점이 아닌 관상학적 관점에서 점은 좁은 의미의 점과 넓은 의미의 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점(痣)’은 ‘튀어나온 점’만을 말한다. ‘튀어나온 점(痣)’은 피부에 넓게 번진 반점(혹은 얼룩)이나 기미, 주근깨, (바이러스성) 사마귀, 악성 흑색종과는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점(痣)’은 편평한 점이나 튀어나

2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英漢雙語 現代漢語詞典』(增補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2. 원문: 痞 [痞子]隆起的痣, 半球形, 紅色或黑褐色 naevus:mole.

23) 白鶴鳴은 『教你看相快而準』(鶴鳴文化出版社, 2012, 105-189쪽)에서 12궁을 중심으로 점에 대한 설명과 점상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은 점, 반점, 사마귀 모두를 지칭해서 말한다. 좁은 의미의 ‘痣’로 보든 넓은 의미의 ‘痣’로 보든 우리말 대응 번역어는 ‘점’이라 해야 한다. 특히 ‘좋은 점(善痣)’ 판단 기준에서는 더더욱 ‘사마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으로 나쁜 점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국의 관상가들은 관상을 볼 적에 ‘痣’를 큰 점(大痣), 작은 점(小痣), 좋은 점(善痣)/살아있는 점(活痣)과 나쁜 점(惡痣)/죽은 점(死痣)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관상가들은 좋은 ‘痣(점)’의 조건으로 ①모양이 둥글면서 튀어나오고 ②색깔이 흑색이나 홍색이면서 윤택하고 ③얼굴의 좋은 부위에 있을 경우에는 좋은 점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痣(점)’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나쁜 점으로 판단한다. 이 구분에서 사마귀(疣)도 넓은 의미의 ‘痣(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결코 복점이 될 수 없다.

그동안 관상서에서 ‘痣’를 ‘점’이 아닌 ‘검정 사마귀’로 번역하거나 표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전의 번역 오류(‘痣=사마귀’)이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튀어나온 검은 점’에 해당하는 우리말 전문 용어가 없다보니 사람들은 이것의 대응어로 ‘점’과 구분하여 ‘검은 사마귀’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參考文獻

- 『柳莊相法』
 『神相全編』
 『相理衡眞』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86.
 『進明 中韓辭典』, 진명출판사, 2004.
 『中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大漢和辭典』, 東京:大修館書店, 2000.
 『中英辭典』, 北京:商務印書館, 1979.
 『漢典』(인터넷 사전)
 『英漢雙語 現代漢語詞典』, 北京: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2.
 『프라임 일한사전』, 동아출판사, 1990.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 편찬, 『Mosby 의학간호학대사전』, 현문사, 2002.
 대한간호학회 편,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5.
 『역마』(김동리 문학전집 10), 계간문예, 2013.
 佐藤六龍/李仁光 역, 『觀相寶鑑』, 明文堂, 1981.
 陳釗/임승혁 외 역, 『상리형진』, 도서출판 황금시대, 1998.
 袁拱/이건일 역, 『관상학의 교과서 유장상법』, 도서출판 삼화, 2014.
 金哲眼, 『觀相寶鑑』, 大文社, 1955.
 申一, 『觀相學全書』, 東洋書籍, 1977.
 秋松鶴, 『觀相學總秘傳』, 生活文化社, 1979.
 백운학·강태호, 『관상 보는 법』, 동양서적, 1991.
 이정옥, 『실용관상학』, 천리안, 2005년.
 김광일, 『관상학길잡이』, 책만드는집, 2008.
 최형규, 『꿀값하네』, FACEinfo, 2008.
 蔗廊間人, 『瘰斑命相大全』,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2002.

紫陽居士,『痣相一本通』,臺北:知青頻道出版有限公司,2014.

鐵筆居士,『3天搞懂痣相』,新北:樹葉出版社,2011.

白鶴鳴,『教你看相快而準』,香港:鶴鳴文化出版社,2012.

Abstract

A Review on the Meaning of '痣[zhi]' in the Dictionary and the
Physiognomy-Book

Baek, Su-jin

The word corresponding to 'geom(검)' is expressed as '痣' either Chinese written or spoken expression. English translated word to '痣' is 'mole' and '疣[yóu]' is 'wart' in English. But in Korean physiognomy-books, the word referring to 'geom(검)' is expressed as 'black wart' or 'wart'. And also, in Korean dictionaries, '痣' is translated into not 'geom(검)' but 'wart'. However, in Chinese, the word corresponding to 'wart' is not '痣' but '疣[yóu]'. From these expressive differences between two langu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correct Korean translated word for '痣' from physiognomic viewpoint rather than medical one, but also to find out the reasons for using the term, 'black wart' or 'wart' instead of 'mole'.

In physiognomy, 'protruding mole' is called '痣'. '痣' refers to a mole developed from pigmentation of skin.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a viral skin disease. So far, there are two major reasons for translating or expressing '痣' with 'black wart' rather than 'geom(검)' in Korean physiognomy-books. The main reason is the translation fallacy('痣=wart') in Korean dictionaries. As the next reason, Korean people have used 'black wart' or 'wart' as substitute words because there is no Korean noun corresponding to '痣'. Thus, '痣' should be translated into 'protruding mole' rather than 'black wart' or 'wart'.

Key words : physiognomy, 痣[zhi], geom(검), mole, translate

투 고 일 : 2016. 5. 10. / 심 사 일 : 2016. 5. 15.~ 2016. 6. 15. / 게재확정일 : 2016. 6. 16.